전주의 도시 변화상 어제와 오늘 '한눈에'

시, 경관 사진 기록화 사업 추진… 6월까지 경관 스토리북 제작 계획

전주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전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관통하며 급변 전주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경관 사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는 지난 수십 년간 도시정책의 수립과 집행,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경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전·후 공공부문 기록이 부족해 경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전주도심 곳곳의 4계절의 도시 경관의 변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에 착수, 촬영 날짜와 촬영위치를 기록한 후 자료화시켜 오는 6월까지 경관 스토리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전주시기본경관계획을 토대로 조망이 우수한 지역 및 기준점을 선정해 축별·권역별·구역별로 구분한 도시경관을 사진으로 기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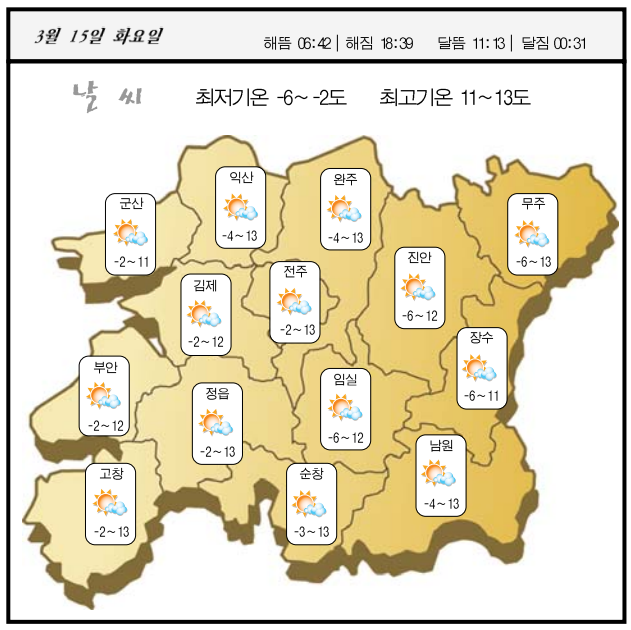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및 지역경제 발전상, 전주의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시민생활도 같이 기록해 전주시 경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년 단위로 도시경관 사진 기록화 사업을 진행, 도시의 경관을 사진으로 꾸준히 기록해 도시의 변화상을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경관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경관 사진 기록화 작업을 통해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주의 변화상을 기록, 전주시 경관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진 기록화 사업이 완료되면 사진 전시회를 열어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은현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시내중심가에 있던 미원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철거돼 안타까워 하는 시민들도 많다"며 "이처럼 도시 경관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와 경관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 맨투맨식 · 감성 홍보 나서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이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에서 맨투맨식 홍보전략과 함께 스카우트 창시자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감성홍보에도 나섰다.

유치단은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에 맞춰 참석한 회원국들의 주요 인사들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유치 홍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각) '아프리카 기금마련 리셉션 행사'와 12일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기념행사'에 참석,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지사는 '아프리카 기금마련 리셉션' 행사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의 잼버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회원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나의 제리 존 롤링스 전 대통령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감동하였으며, 2023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BP경 메시지 되새겨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은 13일(현지시간) 아프리카 가나에서 케냐로 이동하여 스카우트를 창시한 영국의 베이든 포우웰(BP)경이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아 참배와 헌화하고 BP경 흉상에 한국스카우트 행거를 걸며 범세계적 청소년 운동을 만든 BP경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있다.

한편 잼버리 유치단은 아프리카 스카우트 연맹 임원들과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기념행사'를 함께하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전북 현대 모터스'의 서포터즈 머플러(ARGYLE)를 선물하기도 했다. /정영수 기자

'새만금사업 관리본부' 오늘 개소

4팀 16명 현장 업무 수행

14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에 따르면 원활한 현장 집행업무 추진을 위한 새만금 현장조직 '새만금사업 관리본부'의 개소식이 15일 야미도 동서2축도로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개최된다.

이는 새만금 지역의 산단 조성, 간선도로 착공 등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현장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는 현장총괄팀(3명), 도로공사팀(3명), 항만공사팀(3명), 민원관리팀(6명) 등 4팀에 본부장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을 최소화하고 현장 관리·집행 업무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향후 2년이 새만금의 20년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실질적 사업진척을 위해 현장·속도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학교 인성교육 강화해야"

이기동 의원, "사회적 병폐 치유를 위해서"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이 사람 중심의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기동 시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4일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이혼율, 흡연율,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안전망 등 50여 가지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수저 계급론과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등의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병폐의 치유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6기 '사람의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학교교육에서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을 사람다운 사람,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성이 바로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강좌 개설이나, 교육 예산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민간 인성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학교와 관련 시민교육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진로체험이나 감정코칭, 비전스쿨, 아버지 어머니 학교 등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에 적극 투자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 기반조성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